



KOSPI 지수, 사상 2번째로 높은 종가

1. 4월 10거래일 중 9거래일 상승한 KOSPI

- 4/14일 KOSPI 지수는 사상 2번째로 높은 종가
- 4월 들어 10거래일 중 9거래일 상승 중
- 3,000pt 회복한 3/25일 이후로 계산하면 15일 중 12일 상승
- 4월 월간 수익률은 +4.0%. 21년 들어 가장 높은 월간 수익률

2. 크게 낮아진 변동성, 조용한 반응

- 4월 들어 KOSPI 지수가 1% 이상 상승한 것은 4/13일 하루
- 1~3월과 비교하면 지수 움직임 크게 낮아짐
- VKOSPI 지수는 최근 1년래 최저치로 하락
- 3/11일 만기 이후 일간 변동성 낮아진 영향

3. 사지 않는 개인, 거래하지 않는 외국인

- 4월 KOSPI 일 평균 거래대금 14.6조원. 11월 이후 최저치
- 시총대비로 계산할 경우 작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
- 개인의 매수세는 4월 들어 둔화 (2,000억원 순매도)
- 4월 외국인 거래비중 14.7%, 순매수도 일부 종목에 집중된 모습



주식시장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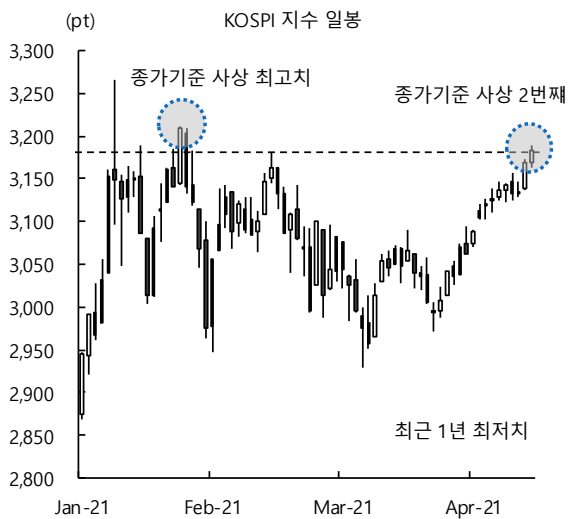
1. 4월 10거래일 중 9거래일 상승한 KOSPI

4/13일 KOSPI 지수는 3,169pt로 마감했다. KOSPI 지수가 3,150pt 위에서 마감한 것은 사상 5번째였다(1/8, 21, 25, 2/16, 4/13). 장중고가로 3,150pt를 돌파한 적은 많았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넘기 힘들었던 것이 3,150pt였다. 그리고 4/13일 지수는 1/25일(3,208.99pt)에 이어 사상 두번째로 높은 증가이기도 했다.

그리고 전일 KOSPI 지수는 3,182.38pt로 마감, 2위기록을 경신했다. 4월 들어 KOSPI 지수는 10거래일 가운데 4/9일을 제외한 전 거래일 상승 중이며, 지수가 마지막으로 3,000pt를 하회했던 3/24일 이후로만 계산하면 15거래일 가운데 12거래일 상승중이다. KOSPI 지수는 4월 들어 +4.0% 상승했다. 연초 이후 KOSPI 지수의 월간 수익률이 1월 +3.6%, 2월 +1.2%, 3월 +1.6%였음을 고려하면 월간 수익률도 높다.

하지만, 증시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다. 오히려 2000년 9월 이후 처음으로 1,000pt를 회복한 KOSDAQ 지수에 관심이 더 모여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차트1] 4/14일 KOSPI 증가 3,182pt.
종가 기준 사상 2번째로 높은 지수



자료: Myresearch,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KOSDAQ 지수는 2000년 9월 이후 처음으로 1,000pt를 회복



자료: Myresearch,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시장 투자전략

2. 크게 낮아진 변동성, 조용한 반응

증시에 대한 관심이 덜해진 이유는 변동성이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급등, 급락이 잦았던 1~2월과 달리, 3~4월의 증시 변동성은 크게 낮아졌다. 지수가 월간단위로는 꽤나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지만, 일간단위로는 상승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임팩트가 크지 않았다. 4월 들어 KOSPI 지수가 1% 이상 상승한 것은 4/13일 단 하루에 불과했고, 반면 10pt 미만의 상승폭을 기록한 것은 4일이었다.

1~2월 KOSPI 지수의 움직임은 컸다. 1월의 경우 20거래일 중 지수가 2% 이상 움직인 것은 9거래일에 달했고, 2월에도 2% 이상의 등락은 18거래일 가운데 4거래일 있었다. 3월의 경우 KOSPI 지수가 일간단위 2% 이상 움직인 적은 없었지만, 1% 이상 움직인 날은 9일 있었다. 4월의 흐름은 분명 1~3월과는 다른 모습이다.

변동성 지수인 VKOSPI 지수는 최근 1년래 최저치로 하락해 있다. 특히, 3/11일 만기일 이후 하락폭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LP계약 만료된 이후 금융투자의 차익거래가 둔화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증시 상승, 하락과 별개로 일간 변동성이 높았던 1~2월과는 달리, 장중 변동성도 낮아진 상태다.

**[차트3] VKOSPI 지수, 최근 1년래 최저치로 하락
낮아진 변동성 확인**



자료: Myresearch,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지수의 움직임 또한 둔화
3월 이후 일간단위 지수의 2% 움직임은 없음**

	1월	2월	3월	4월
거래일	20	18	22	10
수익률	+3.58%	+1.23%	+1.61%	+3.95%
1%~2%상승	2	4	6	1
1%~2%하락	1	2	3	-
2%이상상승	5	2	-	-
2%이상하락	4	2	-	-

자료: Myresearch,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시장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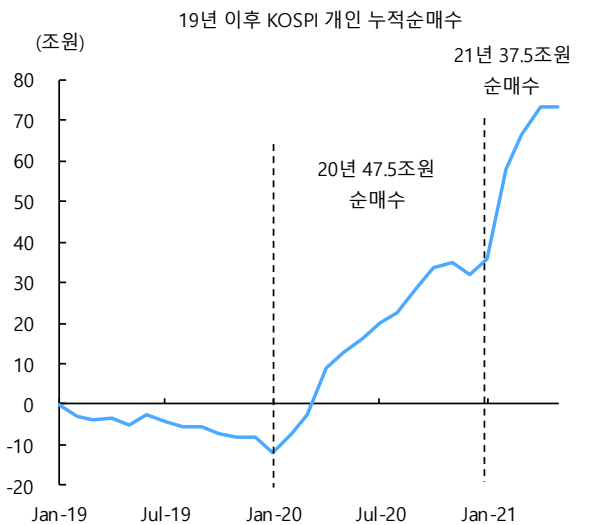
3. 사지 않는 개인, 거래하지 않는 외국인

상대적으로 증시의 반응이 미온적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4월 들어 KOSPI 일평균 거래대금은 14.6조원으로 집계되는데, 이는 작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시총대비로 계산할 경우 작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14.6조원이라는 거래대금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지난 1년과 비교하면 거래가 부진하다고 느껴진다.

수급 주체 중에서는 달라진 개인의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인은 작년 47.5조원을 순매수 했고, 올 들어서도 37.5조원을 순매수 하며 증시 수급을 이끌어 왔는데, 4월에는 2,000억원의 순매도를 기록, 매수세가 둔화된 모습이다. 참고로, 20년 1월 이후 15개월 중 개인의 월간단위 순매도는 20년 10월이 유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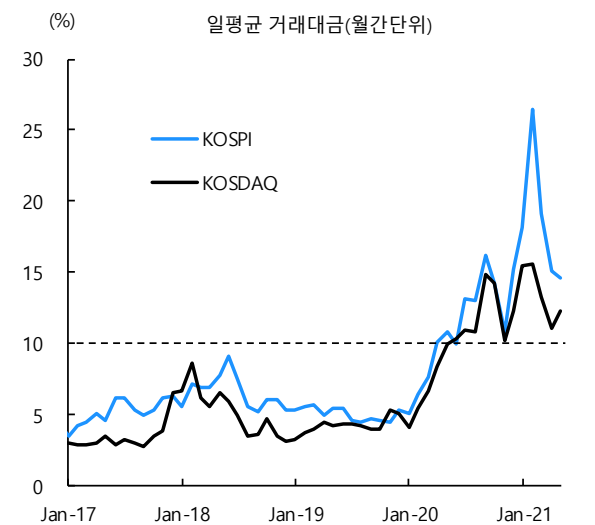
외국인은 4월 들어 2.4조원을 순매수 중이다. 순매수 규모로만 보면 19년 1월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순매수 금액이다. 순매수 금액으로만 보면, 개인의 공백을 외국인이 메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4월 외국인의 거래 비중은 14.7%로 증시 참여도가 높지 않다는 점, 삼성전자(9,140억원), SK하이닉스(3,370억원) 두 종목에 순매수의 절반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차트5] 개인은 20년 1월 이후 85조원을 순매수 해왔으나, 4월 들어서는 소폭 순매도 중



자료: Myresearch,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6] 4월 들어 일평균 거래대금은 14.6조원으로 감소 시총대비로 보면 작년 3월 이후 최저치



자료: Myresearch,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